

제주해녀의 노동력 재생산 연구 방향*

이중호**·조철기***·권경희****·송원섭*****

Sett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the Labor Reproduction of the Jeju Haenyeo*

Jong-ho Lee** · Chul-ki Cho*** · Kyunghee Kwon**** · Wonseob Song*****

요약: 제주해녀는 현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모계 승계를 기본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식과 기술 전수를 통해 이루어져 온 전통적 노동력 재생산 방식은 점차 소멸되어 그 역할의 일부를 제주해녀학교와 같은 직업훈련 기관이 대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속가능한 수준의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녀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노동력 재생산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는 학술적 및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제주해녀의 노동력 재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와 노동력 재생산에 있어서 직업훈련 기관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 연구를 위한 주제 및 분석항목을 추출하고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제주해녀학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얽힌 관계의 측정을 위해 사례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정성적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주요어: 제주해녀 공동체, 직업훈련기관, 제주해녀학교, 노동력 재생산, 사회자본

Abstract: Jeju Haenyeo is in danger of extinction, and the issue of labor force reproduc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agenda. The traditional method of labor force reproduction based on matrilineal succession is gradually disappearing, and part of its role is being taken over by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Jeju Haenyeo School.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ustainability of Jeju Haenyeo, sustainable labor reproduc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so multidimensional study on the labor reproduction issue of Jeju Haenyeo has important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we analyzed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2022S1A5A2A03052859).

**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hl@gnu.ac.kr)

*** 공동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kcho@knu.ac.kr)

**** 공동저자: 대구교육대학교 시간강사 (Lecture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wonspider@naver.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wssong@jejunu.ac.kr)

previous studie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reproduction of Jeju Haenyeo's labor force and the role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 labor force reproduction. Based on this, we presented three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First, a detailed analysis of the role of Jeju Haenyeo School as a key platform for reproducing the Jeju Haenyeo's labor is required. Secon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reproduction of the Jeju Haenyeo labor. Third, a qualitative analysis proces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in order to measure the organic relationships centered on the haenyeo community.

Key Words : Jeju Haenyeo community,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Jeju Haenyeo School, labor reproduction, social capital

1. 서론

제주해녀 공동체는 마을 어장의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 생산활동과 일괄 판매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어촌 공동체의 경제적 특성 외에도(권상철, 2015; 이종호 외, 2023) ‘물질’이라는 자연친화적 채취 방식, 상군-중군-하군의 엄격한 내부 조직, 물질과 관련된 지식과 전통, 기술에 대한 공동체 학습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7년 ‘해녀’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범위로 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은솔·정상철, 2018; 송원섭 외, 2023).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해녀의 직업 및 활동적 특수성 및 가치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서 출발했다(고미, 2023; 송원섭, 2023). 그러나 가치 전승 및 보호 필요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녀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주도 내 해녀는 1970년 14,143명에서 1980년 7,80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2023년 그 수는 2,839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해녀 2,839명 중에서 70세 이상이 1,711명을 차지하고(60%) 40세 미만의 해녀는 약 1.2%(33명)에 불과해 대부분 활동 중인 해녀들은 고령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 해녀의 노동력 재생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해녀박물관 홈페이지 통계자료, 2024년 4월 검색).

노동력 재생산의 개념을 제주해녀의 후속 세대 양성 및 해녀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의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노동력의 수급은 공적인 직업훈련 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직업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의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추가적 지식과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한주성, 2014; 문영만, 2022). 우리나라는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 기능인력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숙련기능·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직업훈련원 설치, 실업계 고등학교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 고용보험을 통한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등 국가 주도의 인력양성 정책을 강화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민간훈련 기관의 역량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민간훈련 기관의 역량이 향상되어 민간위탁 직업훈련이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유길상, 2010).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해녀 노동력의 재생산 방식은 정부 주도, 민간위탁 직업훈련 기관 등의 공식적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모계 승계를 기본으로 하는 해녀 공동체 내 지식 및 기술 전수의 방식을 통한다. 왜냐하면 직업 해녀로서의 기술 및 생태 지식

은 관련된 역사, 문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고 이러한 지식체계는 경험을 통해 노하우의 형태로 축적되는 암묵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 노동력 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학습은 해녀 공동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흡사, 이러한 과정은 관찰, 반복, 그리고 감각을 통해 느끼게 되는 장인(craftman)의 학습 과정과 유사하며(이병준·박응희, 2015), 따라서 제주해녀 노동력의 재생산은 공동체 내 일상에서의 모방과 반복된 훈련 경험을 통한 경험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체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녀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인 모계 승계의 약화,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의 재생산이 공동체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결국 이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기술과 지식의 학습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2곳의 운영을 통해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동부권에 도 해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

동력 재생산의 효과는 미미하다(이원호, 2000; 연합뉴스, 2024.4.9.).

이에 현시점 점차 소멸되는 제주해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제주해녀학교의 직업훈련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녀학교에 대한 연구는 메커니즘 규명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법이나 분석 틀, 분석 항목과 내용 등의 방향성도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학교의 노동력 재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노동력 생산 주체인 직업훈련 기관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제주해녀학교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에 대비하여 해녀학교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주해녀학교의 직업훈련과 해녀의 재생산과의 연계에 관한 실증 연구에 앞선 연구로 해당 연구에서 정립된 연구 방향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향후 노동력 재생산 과정 및 상태뿐만 직업 지속성에 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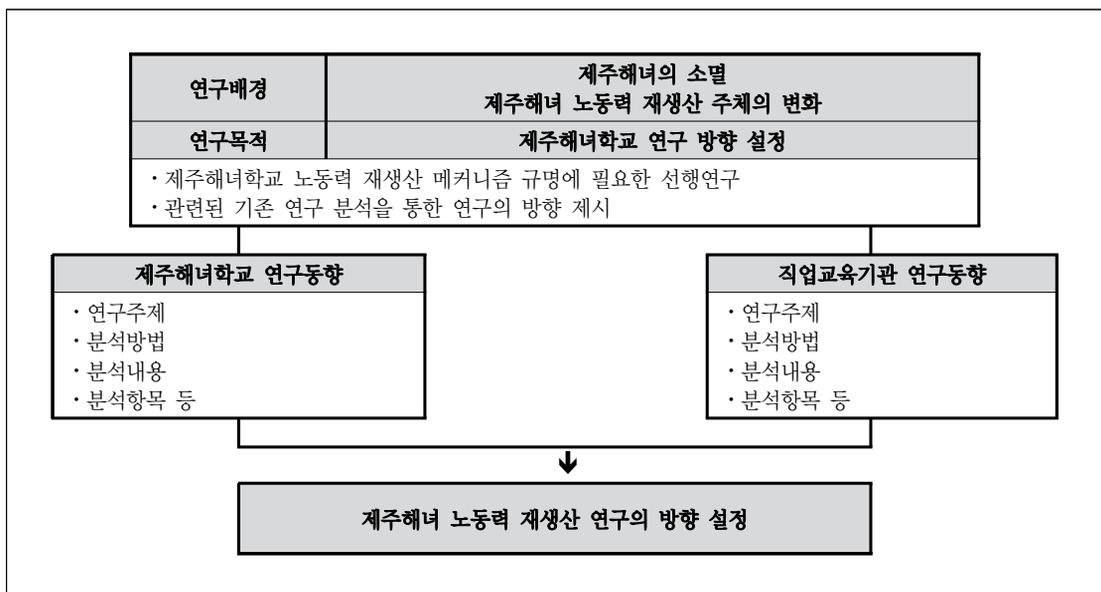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설계

2.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 주체의 전환

전통적으로 제주해녀의 노동력 재생산은 모계 승계 방식이며 직업인 해녀에 대한 지식의 학습과 물질 기술의 전수 등 교육훈련은 제주해녀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해녀들은 어린 시절 바닷가나 집 앞 양식장을 놀이터 삼아 친구들과 함께 놀았으며 어머니를 비롯해 마을의 물질하는 해녀들을 보면서 물질이나 불턱에서 옷을 갈아입는 흥내를 내며 ‘해녀 놀이’를 했다. 이러한 놀이는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고 그들에게 해녀라는 직업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홍정관, 2018; 양인실, 2022).

이후, 직업 해녀로의 교육은 어머니에서 딸로 혹은 공동체에서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린 딸이나 손녀가 해녀로서 물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할머니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작은 테왁과 망사리²⁾를 만들어 주었다(좌혜경·권미선, 2009). 테왁과 망사리 등 물질 장비를 받는 것은 정식 해녀로서의 입문과 같은 의미가 있으며, 직업인으로서 해녀에 입문한 후에는 물질에 필요한 지식 즉,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도 괜찮은 곳,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본적인 방법 등은 어머니에게 일상을 통해 전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의 해녀들이 어머니에게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내용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해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홍정관, 2018).

이러한 학습과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은 ‘불턱’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불을 피워 몸을 덥히는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상군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경험, 동료들 간 작업의 공유와 정보 교환으로 해녀들은 물질의 요령이나 지식을 습득한다(홍정관, 2018; 김권호·권상철, 2016; 조인애, 2019). 불턱에서 물질 지식은 때로는

노동요를 통해 전달되는데 노동요에는 작업의 고단함, 성취의 기쁨뿐만 아니라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거나 채취의 욕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반영하고 있어, 해녀들은 노동요를 통해 바다를 경계하도록 배운다. 노동요 교육은 곧, 위험 상황 대비 훈련 그 자체이다(양경숙, 2019).

해녀에게는 불턱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 일상의 전반에 걸쳐 생활하는 공동체 내 모든 공간이 학습의 장소이다. 공동체 내에서 해녀를 처음 접하고 직업인으로서 해녀에 입문한 후 시시각각 변하는 작업 환경 내에서 실제 물질을 통해 배우고 극복하며 체감하는 경험의 모든 과정이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학습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무형식 학습의 형태로 학교나 교육기관을 통해 배우는 학습이 아닌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며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학습자에게 체화된다. 이 과정은 학습자의 계속적인 노력 외에도 타인과의 지식 및 정보 교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홍정관, 2018).

결국 모계 승계 중심의 전통적인 해녀 공동체 교육에서 공동체 내 지식의 확산과 정보의 공유는 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바탕이 된다(이홍택, 2018).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며 기술을 일찍 익히고 자연스럽게 해녀들의 관행에 익숙해졌다. 즉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사회자본을 취득한 것이다(양인실, 2022). 또, 처음부터 해녀들이 자신만의 노하우와 물질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홍정관, 2018). 공동체를 통해 전달되는 무형식 학습은 암묵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암묵적 지식의 전달은 신뢰(trust) 관계와 규범(norms)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해녀들은 자신의 딸에게 해녀 직업을 권하지 않고, 심지어는 딸이 해녀가 되겠다고 반대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이선화, 2016). 또 과거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녀가 될 수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마을 단위의 어촌계가 형성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해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홍정관, 2018). 이처럼 ‘제주해녀문화’는 그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전승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 전승해야 할 해녀문화의 근간이 흔들고 있다(이종호 외, 2023). 승계의 방법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해녀가 되는 방법은 해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에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³⁾이 수립·시행되어 제주해녀학교를 통한 신규 해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즉 본래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영역에 머물러 있던 해녀의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고 공식적인 영역의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해녀 노동력 재생산 주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도 내 해녀학교로는 한림읍 귀덕 2리에 위치한 <한수풀해녀학교>와 서귀포시 법환동에 위치한 <법환해녀학교> 2곳이다. <한수풀해녀학교>는 점차 사라져 가는 해녀문화를 젊은 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어(2007년) 2017년부터 기존 ‘해녀체험’ 프로그램에 더해 ‘해녀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한수풀해녀학교 홈페이지). <법환해녀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직업 해녀의 전문적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법환해녀학교 홈페이지). 현재 해녀양성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두 곳의 해녀학교이지만, 해녀양성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법환해녀학교> 조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졸업생(156명) 중 30.1%인 47명만 어촌계에 가입해 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의 소리, 2023.10.18.).

이에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재생산 기관으로서, 제주해녀학교의 기능과 역할 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제주해녀학교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노동력 생산 주체인 직업훈련 기관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 연구를 위한 주제 및 분석항목을 추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3. 제주해녀학교에 관한 연구동향

해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현저히 부족하다. 해녀학교를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조인애(2019)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추구하는 생물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제주해녀학교 학생들의 전통 생태지식과 공동체 의식을 논하고 있다. 즉 생물문화 다양성은 지역 토착민들의 전통 생태지식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주해녀의 전통 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 습득의 장으로서 <한수풀해녀학교>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해녀학교 교육과정, 해녀학교 학생들의 입학 동기, 그리고 해녀학교를 통한 배움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통 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얻는지 밝혔다. 연구자는 <한수풀해녀학교> 입학을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의 연구 방법을 통해 배움의 물리적이고 관계적 장으로서 제주 해녀학교의 기능과 입학생들의 배움의 동기, 물질 실습과 이론 수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분석, 배움의 결과로 전통 생태지식의 습득과 공동체 문화 체득 방법, 불턱의 기능, 이주 적응도와 사회적 네트워크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해녀학교가 생물문화 다양성 보존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 의식과 공유 자산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경숙(2019)은 해녀학교를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해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의 연구와는 달리 해녀를 ‘직업’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직업 전승의 방법 중 하나로 해녀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에서는 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전·현직 해녀와의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해녀 고유의 직업훈련과정을 파악하였다. 연구자의 시기 구분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직업전환기’에 이르러 제주해녀는 수의 감소 문제에 직면했고, 결국 201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리후생, 지원 제도, 그리고 해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과정이 추진되었다. 직업교육 담당 기관으로서 해녀학교의 교육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 요소는 교육과정 내 직업교육의 내용,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비중, 입학생과 졸업생의 수 및 어촌계 활동자 수, 어촌계 가입 조건, 훈련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직업인 해녀의 계승을 위해서는 복리후생의 혜택보다 제주해녀학교를 통해 전통의 불턱에서의 교육과 모계 사회로 이어진 물질 훈련을 예전의 전승법을 지키며 교육하는 것, 해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 대상의 교육과정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녀라는 ‘직업’과 ‘직업인’에 대한 연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각 시기별로 직업인으로서 제주해녀의 활동을 고찰하고 현재의 해녀 직업 양성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해녀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엄밀히 말해 제주해녀학교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해녀학교를 언급한 연구로 조소현(2019)의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내적 보호조치 이행 상황에서 제정된 정책들의 효과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정책 중 하나로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해녀학교를 예로 들어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해녀학교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첫째, 제주해녀학교의 훈련 프로그램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석 연구가 없다.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기여, 고용과 임금 등의 경제적 부문에 제주해녀학교의 어떠한 교육과정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제주해녀학교의 설립 목적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해녀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고 교육과정과 내용의 소개는 정리의 수준에 그쳤으며, 직업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공동체 문화 및 지식 전승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분명 제주해녀학교의 주요 설립 목적은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녀의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노동력 재생산 주체로서의 제주해녀학교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해녀 역시 전문 직업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문화 전승자로서만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인 모계 승계, 해녀 공동체를 통한 암묵적 지식 전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뢰 등의 사회자본을 공적 기관인 제주해녀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가 없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높이고 암묵적 지식 전달을 가능하게 하며 해녀라는 직업의 적응과 지속, 해녀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학습의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구축된 사회자본을 제주해녀학교의 교육 주체와 프로그램 등이 어떤 방식을 통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4.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연구동향

급감하는 해녀 수와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필요성에 의해 제주해녀학교는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노동력 재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로, 일반적인 산업사회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직업훈련 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극히 드문 제주해녀학교 연구의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본 장에서는 직업훈련 기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 분석의 요소, 분석의 방법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직업훈련은 산업구조와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에 수반하는 숙련 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강유임, 2021). 그간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행정부처의 관리를 기준으로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교에서의 직업 관련 교육으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은 고용노동부 등 타 행정부처에 관리하에 있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해 왔다(이재준, 2018). 그러나 전통적 개념에서의 직업교육이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상호보완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김경희, 2003; 이재준, 2018). 즉, 공식적인 교육 체제 안에서 운영·관리되는 기관에서의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직

업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또 다수의 산업 분야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직업훈련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공식 기관에서의 직업훈련 역시 산업 분야의 모든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학습하고 향상하는 교육과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강유임, 202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직업훈련의 개념을 쓰기로 하겠다.

직업훈련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기준으로,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국가 직업훈련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표 1).

표 1과 같이 국외 연구의 다수, 그리고 국내 대부분

표 1. 직업훈련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대상	연구주제 및 분석 요소 ^{*)}	분석방법		저자
		정량	정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평가 ·민간/공공 훈련 프로그램의 품질 - 과정 출석률, 기간, 교사의 질, 교육내용	●		Hirshleifer <i>et al.</i> (2016)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 수립: 교육목표 설정 적합성, 프로그램 체계성 - 운영: 운영 주체, 교육과정 성격, 교육 방법 및 유형, 교육 시기, 교육 시간 - 교육생 관리: 대상자 선발 방법, 수강 선수 조건 - 평가: 평가 방식(만족도, 시험, 출석, 과제, 결과물 등)	●		유병민 외 (2010)
	·2006 농림부 국고지원 77개 기관에서 운영된 157개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목적, 대상, 기관 역할과 목적의 부합성 - 교육역량: 전담조직 및 인력,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프로그램 실적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교과과정, 교육 기간 및 일정, 강사, 교육 방법, 교육비, 교육관리 - 교육실적 및 평가: 실적, 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		나승일 외 (2007)
	·케냐 직업훈련의 혁신 가능성을 밝히고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갖춘 졸업생 배출 방법 제시 - 교육 커리큘럼 - 교육 후 성과(사례 소개)		●	Okwi(2023)
	·귀농교육 특히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성취도, 효과성 분석 ·Kirkpatrick 4단계(반응-학습-행동-결과) 모형 중 1, 2단계 활용 - (반응) 만족도: 교과목, 교재, 강사, 교육 방법, 교육 환경, 교육 시간, 교육기관 신뢰 - (학습) 성취도: 재배기술 및 관리, 경영관리, 농기계 관리 - 효과성 요인: 귀농-귀촌 자신감 향상 정도	●		최윤지 외 (2015)

분석대상	연구주제 및 분석 요소 ^{*)}	분석방법		저자
		정량	정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요구인력과 양성인력 간의 괴리에 대한 문제 인식, 학교 및 기관 교육, 정부 인력양성사업 등 모든 해양수산 분야 양성과정을 망라한 실태, 개선방안 연구 - 전체 졸업생 대비 해양수산계 졸업생 비중, 해양수산 분야별 학과 수와 분야별 비중, 해양수산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	●		박광서 외 (2017)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효율성 분석 - (투입 요소) 소요예산, 투입 강사, 교육시간 - (산출 요소) 교육 만족도, 강사 만족도	●		정호찬·장우환 (2012)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농어업 경쟁력 및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기여, 교육생 육구 충족에 대한 기여, 기여도 영향 원인, 교육 경험으로 인한 변화 - 정량: 과정 효과 분석(수업 참여 전 교육에 대한 기대치, 참여 후 만족도,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 교육 적절성과 만족도) - 정성: 교육 참여의 경험('교육과정에 참여하기까지의 경험', '교육 참여 중의 상황적 맥락', '교육 경험 이후의 변화')	●	●	이영희·이순석 (2012)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임금 효과를 확인하고 훈련 기관 간 훈련 효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근거 제시 - 참여 여부 - 임금 효과(기관 별/장애 정도 별)	●		유완식·이정주 (2006)
	·농업 전문직 교육훈련 참가자의 교육 후 현업 적용도와 현업 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 심리특성: 자기효능감, 현업 적용동기 - 프로그램 특성: 직무관련성, 학습 전이설계 - 전이 풍토: 상사 지원, 동료 지원 - 현업적용도	●		조영실·왕진 (2023)
	·직업훈련 비용과 경제적 이익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1인당 훈련 비용 - 안정적 고용, 임금 수준, 삶의 질, 직업 만족도, 판매, 부가가치, 고용, 제품 및 수출 증가	●		Samoliuk <i>et al.</i> (2021)
	·동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실업 기간에 미치는 영향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 노동시장 이력: 실업, 고용 기간	●		Hujer <i>et al.</i> (2004)
	·한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임금 및 고용 확률 관계 및 연령별 직업훈련의 효과 정도 분석 - 정규/비정규 훈련 참여 여부, 참가자 수, 훈련과정에 대한 지출 - 임금, 고용 확률	●		Lee <i>et al.</i> (2019)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과 임금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민간/공공의 훈련 효과 비교) - 직업훈련 참가 여부, 교육장소(사설학원/인정직업훈련원/기업 내 직업훈련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vs 공공직업훈련 기관), 직업훈련 비용(가족/친지/기업 vs 정부) - 월평균 임금	●		강순희·노홍성 (2000)
	·직업훈련 경험과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 직업훈련 경험, 직업훈련 개수 - 직장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	●		이상은(2005)
국가 직업 훈련체계	·독일의 이중 훈련 시스템의 특징과 현대적 과제 모색 및 국가 정책 제시 - 훈련 조례, 훈련 기간, 기업 기반과 학교 기반 훈련생 수, 기업의 훈련 비용 증감, 기업 규모별 훈련 기회, 제조업과 서비스업 훈련생 비율	●		Thelen(2007)

분석대상	연구주제 및 분석 요소 ^{*)}	분석방법		저자
		정량	정성	
국가 직업 훈련체계	·입업 훈련원(기계, 기술, 기능인)의 교육역량 진단 및 개선방안 - 상황(C): 정책,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입업훈련 기관의 비전 및 주요 사업, 입업훈련 기관의 현황 및 기대 역할, 교육대상자 특성 및 요구, 국내·외 관련 교육 동향 - 투입(I): 리더십, 시설 및 기자재, 예산, 교육담당자, 강사, 교육정보, 네트워크 및 협력, 교육과정, 외부 전문가 활용, 조직 구성 및 직무 - 과정(P):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사후관리 - 산출(P): 만족도, 교육 효과성, 현업적용도	●		김진모 외 (2012)
국가 직업 훈련체계	·덴마크/독일/미국/캐나다/한국의 생산과 노동시장, 노사 관계 차이를 통해 직업훈련 제도 간 차이점 비교, 국가의 역할과 정책 방향 제시 - 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회적 파트너 유무, 공교육 시스템, 진학률, 기업 내 직업훈련 비중, 실업자를 위한 훈련 비용, 훈련·임금 관계, 수료생의 훈련 관련 진로와 진로 다양성	●		Bosch <i>et al.</i> (2008)
국가 직업 훈련체계	·영국/네덜란드/스웨덴 직업훈련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시기별(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의 시기/노동시장 정착 이후 시기/실직 시기)로 분석 - 각국의 정규/직업/기업 교육시스템 - 훈련 경력, 훈련 수준(초/중/고등 수준), 훈련 유형(일반/직업교육) - 고용 경험, 직업 경력, 근무 이력, 고용 기간/실업 기간	●		Korpi <i>et al.</i> (2003)
직업 훈련기관 환경의 효과	·직업훈련 기관의 인적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이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적서비스 환경 특성: 직원의 서비스 지원, 강사의 역량 - 물리적 환경 특성: 직업훈련 기관의 쾌적성, 편의성, 청결성 및 위치성	●		강유임(2021)

의 직업훈련 관련 연구는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그 자체를 분석한 연구(Hirshleifer *et al.*, 2016; 유병민 외, 2010; 나승일 외, 2007)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훈련 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Okwi, 2023; 최윤지 외, 2015; 박광서 외, 2017; 정호찬·장우환, 2012; 이영희·이순석, 2012; 유완식·이정주, 2006; 조영실·왕진, 2023; Samoliuk *et al.*, 2021),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훈련 이후의 직업적 변화에 관한 연구(Hujer *et al.* (2004); Lee *et al.*, 2019; 강순희·노홍성, 2000; 이상은, 2005)로 구분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 자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출석률, 훈련 기간, 교사의 질, 교육내용 등으로 판단하거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부터 운영, 교육생 관리, 평가까지 단계별로 교육목표

설정 적합성, 프로그램 체계성, 기관 역할과 목적의 부합성이나 운영 주체, 전담 조직, 강사, 교육과정 성격, 교육 방법 및 유형, 교육 시기 및 시간, 교육비,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대상자 선발 방법, 수강 선수 조건, 교육생 평가 방식, 프로그램 실적, 평가의 활용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직업훈련 이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훈련 유형과 수준, 훈련 기간, 교사의 품질, 참여 여부, 비용 등의 요소가 임금 및 고용, 실업 기간, 만족도, 추천 의도, 훈련 수료생 대비 졸업생의 비중이나 훈련 내용과 취업 분야의 일치 정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만족도는 대부분이 경제적 만족도 즉 고용, 실업, 임금 증감, 지위 향상 등의 요소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부 연구에서는 현업에서의 자신감, 성취감, 안정감과 같은 생활 및 심리적 만족도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이들 연구 역시 대부분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 전반적

인 국가 직업훈련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보쉬(Bosch, 2008)는 국가의 자본주의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된 각 국가의 직업훈련 제도를 비교하여 직업훈련의 매력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를 노동시장과의 연계 정도, 임금, 승진의 기회라고 하였다. 그들은 국가가 직업훈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텔렌(Thelen, 2007)은 정치, 경제적 맥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의 적극적 대응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정책을 제시했다. 직업훈련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직업훈련의 효과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 국가 통계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거나 연구목적에 따라 기존 자료 보충을 위해 훈련 비용, 진학률, 훈련 기간, 훈련생 수, 업종별 훈련생 비율 등을 요소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그 밖에 직업훈련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이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강유임(2021)은 인적서비스 환경 특성을 직원의 서비스 지원, 강사의 역량의 요소로, 물리적 환경 특성을 직업훈련 기관의 쾌적성, 편의성, 청결성 및 위치성의 요소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소가 훈련생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결국 이러한 만족도와 추천 의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5.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 연구 방향 설정

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주해녀학교는 해녀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대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의 훈련과정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기여, 고용, 임금, 직업인 해녀의 유지와 같은 경제적 역할은 간과한 채 해녀문화 전승의 역할에 한정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제주해녀학교의 경제적 기여 즉, 노동력의 지속적인 수급에 대한 기능과 역할, 효과에 대한 분석 요소와 항목은 앞선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에서 차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혹은 국가 직업훈련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경제적 성과에만 편향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제주해녀학교 분석 방향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인 해녀 양성을 위한 교육,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의 형태, 노동력의 양성 방법, 양성된 노동력의 투입 시장의 성격, 해녀 직업의 적응 및 유지 조건은 일반적인 산업 노동시장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해녀 공동체는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적이며 그 안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공동체 내에서만 공유되는 ‘암묵적 지식’으로 이러한 지식은 같은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긴밀한 정보 공유, 접촉, 경험을 통한 훈련 등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김영정·권효숙, 2009). 전통적 노동력 양성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훈련과정, 노동시장의 투입과 직업 적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며 교육 및 훈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고 신뢰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였다. 라이클로바(Reichlova, 2005)가 개인의 안전 및 안정감의 차이,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가 적응 및 정착에 영향을 준다고 한 바와 같이(마상진, 2018 재인용) 형성된 사회자본은 실제 노동시장 투입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직업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주체인 제주해녀학교의 등장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관과 노동시장을 분리시켰다. 어촌 공동체는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공동체로 어촌계 소득을 회원들이

공동 분배하는 방식이라 이익 감소를 우려해 회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신규 인력의 어촌계 가입을 배제해 온 분위기가 있었다(진금주, 2019; 양경숙, 2019). 새로운 해녀는 기존의 해녀가 수용할 여지나 의지가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뿐만 아니라(조인애, 2019) ‘물질’ 작업의 특성상 직업 적응과 갈등에 기존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녀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진입 후, 즉 해녀 공동체, 어촌계에 소속된 후에도 사회자본의 축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 및 훈련과정의 일부가 해녀학교를 새로운 주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공동체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역할을 제주해녀학교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녀학교에서 축적된 사회자본이 훈련과정 이후 실제 노동시장에서 적응과 정착, 직업의 지속성 유지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표 2).

이러한 ‘사회적’ 부문은 무형적이고 양적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한 성과는 대부분 정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간

표 2. 연구 방향의 설정

구분	분석항목			분석방법	
	입학동기 및 배경	교육의 과정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	정량	정성
문화적 측면	· 입도 기간 · 전거주지와 현거주지	· 출석률 · 중도 포기 비율 · 교육과정 만족도	· 만족도: 직업 만족도(기술 및 지식 향상, 현업적용 가능 정도, 문화 전수), 추천 의도, 자신감 향상의 정도	●	
	· 수업 전 기대치 · 입학 동기	· 중도 포기 이유 · 교육과정 내 문화 전수 내용 · 불턱과 같은 비공식적 장의 문화적 기능	· 만족도: 물질 지식, 공동체 문화 적응 도움		●
경제적 측면	· 입도 기간 · 전거주지와 현거주지	· 출석률 · 중도 포기 비율 · 교육과정 만족도	· 입학생 대비 졸업생 수 · 졸업생 중 해녀 활동자 수 · 만족도: 직업 만족도(소득, 취업, 지원금), 추천 의도	●	
	· 수업 전 기대치 · 입학 동기	· 중도 포기 이유 · 교육과정 내 직업교육 내용 · 불턱과 같은 비공식적 장의 경제적 기능	· 성취도: 직업 해녀 되기의 어려움, 어촌계 가입 과정의 어려움		●
사회적 측면	· 입도 기간 · 전거주지와 현거주지	· 출석률 · 중도 포기 비율 · 교육과정 만족도	· 만족도: 직업 만족도(네트워크 형성), 추천 의도, 지역사회 내 신뢰 관계 도움 정도	●	
	· 수업 전 기대치 · 입학 동기	· 중도 포기 이유 · 기술과 지식의 전달 방법(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 교육과정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도움(조별 수업, 해녀 삼촌과의 협업 등) · 불턱과 같은 비공식적 장의 사회적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신뢰 정도 · 과정 중 훈련 기관과 연계된 사회적 파트너 유무와 도움 내용	· 만족도: 지역사회 및 해녀 공동체 적응 도움, 네트워크 형성 사례 ·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 · 대상에 대한 신뢰 정도(동료, 선배, 해녀 공동체 및 어촌계 구성원, 담당 공무원, 공공 기관, 지역사회 파트너, 정책 등)		●

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또는 인간의 감정이나 표현 등은 구조화된 질문과 답변만으로는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부문의 측정은 해당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인식을 반영하고 현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와 예외적 특성이 배제된다면 그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례나 대상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분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그 속에서 경험의 실재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된 제주해녀학교 연구의 방향에서 사회적 측면의 추가 분석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생들의 잠재적 욕구와 성취 및 만족의 정도, 교육과정 중의 사례와 경험 등을 직접 도출해 낼 양적연구를 보완하는 질적연구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영희·이순석, 2012; 권경희, 2018)(표 2).

6. 결론

2016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전승의 주체인 제주해녀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해녀(2,839명) 중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이다. 이에 직업 해녀의 노동력 재생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의 수급은 공적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수행되었으나 전통적인 해녀 노동력의 재생산은 이와는 달리 모계 승계를 기본으로 하는 해녀공동체 내 지식 및 기술 전수의 방식을 통한다. 왜냐하면 직업 해녀로서의 기술 및 생애 지식은 관련된 역사, 문화,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고 이러한 지식체계는 경험을 통해 노하우의 형태로 축적되는 암묵적 지식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 노동력 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학습은 해녀공동

체의 맥락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해녀 노동력 재생산은 사적 영역인 모계 승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어려워졌고 결국 해녀 관련 기술과 지식, 공동체 문화의 학습이 공적 영역인 직업훈련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한수풀해녀학교>와 <범환해녀학교> 두 곳의 운영을 통해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동부권에도 해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 제주해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제주해녀학교의 직업훈련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하나, 현재 제주해녀학교에 대한 연구는 메커니즘 규명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법이나 분석 틀, 분석 항목과 내용 등의 방향성도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학교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노동력 생산 주체인 직업훈련 기관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제주해녀학교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해녀 노동력 재생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기관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해녀학교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해녀학교의 해녀 공동체 문화 전수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 해녀 양성의 효과, 기능 등 경제적 부문의 기여에 대한 훈련 체계 전반에 관한 조사 분석 필요하다.

둘째, 전통적 해녀 노동력 양성은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훈련과 훈련 후 직업 적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며 일련의 과정은 구성원들 간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신뢰의 정도는 적응 및 정착, 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바, 새로운 교육 주체인 제주해녀학교의 교육과정이 전통적 공동체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부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부문에 대한 분석 요소는 정량적 방법만으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또는 인간의 감정이나 표현 등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성적 방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제주해녀학교의 직업훈련과 해녀의 재생산과의 연계에 관한 실증 연구에 앞선 연구로 해당 연구에서 정립된 연구 방향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는 향후, 노동력 재생산 과정 및 기여상태, 성과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과 직업 지속성과의 관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정도와 노동력 재생산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

- 1)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浮力) 도구(디지털제주문화대전)
- 2)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두는 그물 주머니(디지털제주문화대전)
- 3) 본 계획에서는 해녀학교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350백만 원(지방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 4)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분석 요소에서 제외함

참고문헌

강순희·노홍성, 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23(2), pp.127-151.

강유임, 2021,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환경특성이 교육훈련 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미, 2023, 제주해녀 출가(出稼) 배경과 정착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은솔·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45, pp.317-341.

권경희, 2018, “도시재생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과

활용에 관한 비판적 논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pp.432-446.

권상철,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pp.395-414.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pp.49-63.

김영정·권효숙, 2009, “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 학습에 관한 내러티브연구,” 뇌교육연구 9(4), pp.63-96.

김진모·안상근·주현미·박종선·황영훈·송민철, 2012, “CIPP를 활용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역량 진단 및 개선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pp.47-72.

나승일·김강호·이민욱·민상기·장현진, 2007,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3), pp.97-123.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pp.53-72.

문영만, 2022, “청년 재직자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성과(임금·직무만족도·장기근속),” 직업능력개발연구, 25(1), pp.135-160.

박광서·김주현·김지혜·이정민·이선량, 2017,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 pp.45-54.

송원섭·조철기·안종수·이종호, 2023, “‘해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1), pp.81-93.

양경숙, 2019,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인실, 2022, 제주해녀 생애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길상, 2010,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4), pp.39-64.

유병민·김정주·최영창·박혜진·김선희, 2010,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7(1), pp.45-74.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25(3), pp.111-133.

- 이병준·박응희, 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
에 대한 연구 -통영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 문
화예술교육연구 10(3), pp.27-43.
-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
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pp.5-28.
- 이선화, 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
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이순석, 2012,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의 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경북전통식품
상품화과정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2(2), pp.133-173.
- 이원호, 2000,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역동성과
지역경제발전: 지역격차변화 이해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pp.23-42.
- 이재준, 2018,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직업교육과 교양교
육의 통합적 접근 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4(5), pp.375-398.
- 이종호·송원섭·권경희·조철기, 2023, “제주해녀 공동체
의 공유지 관리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6(4), pp.458-476.
- 이흥택, 2018,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
계에 관한 개념 틀: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 한
국경제지리학회지 21(3), pp.254-269.
- 정호찬·장우환, 2012, “경북 농민사관학교 농업인 교육의
효율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pp.1-23.
- 제주특별자치도, 2021,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
승 기본계획.
- 조소현, 2019,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와 전승: 무형문화유산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영실·왕진, 2023, “농업전문직의 교육훈련 현업적용도
영향요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1),
pp.519-537.
- 조인애, 2019, 제주 해녀학교의 학습 사례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좌혜경·권미선,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
연구 32, pp.229-259.
- 진금주, 2019, “귀어의 동기와 귀어지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1(4), pp.237-258.
- 최윤지·한송희·공민재, 2015, “귀농 교육의 만족도, 성취
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1(1),
pp.51-61.
- 한주성, 2014, “*労働の經濟地理學(노동의 경제지리학)*
中澤高志(나카자와 다카시), 2014, 東京: 日本經
濟評論社, 317쪽.”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892-899.
- 홍정관, 2018, 상군이 된 두 해녀의 생애사연구, 아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Bosch, G. and Charest, J., 2008, “Vocational training and the
labour market in liberal and coordinated econom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39(5), pp.428-447.
- Hirshleifer, S., McKenzie, D., Almeida, R., and Ridao-Cano,
C., 2016, “The impact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Experimental evidence from Turkey,” *The
Economic Journal* 126(597), pp.2115-2146.
- Hujer, R., Thomsen, S. L. and Zeiss, C., 2006,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n Eastern Germany,” *Allgemeines
Statistisches Archiv* 90, pp.299-321.
- Korpi, T., De Graaf, P., Hendrickx, J. and Layte, R., 2003,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employment precari-
ousness in great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Acta Sociologica* 46(1), pp.17-30.
- Lee, J. W., Han, J. S. and Song, E., 2019, “The effect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Research* 17(1), pp.96-111.
- Okwi, P., 2023, Vocational training works for communities
and the economy in Kenya, IDRC Research proj-
ects(<https://idrc-crdi.ca/>)
- Thelen, K., 2007,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German
vocational training system,” *Regulation & Governance*
1(3), pp.247-260.
- Samoliuk, N., Bilan, Y. and Mishchuk, H., 2021, “Vocational
training costs and economic benefits: Exploring the
interactions,”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22(6), pp.1476-1491.
- 연합뉴스, 2024, “제주 동부권에 해녀 양성 학교 세운
다,” 2024년 4월 9일.
- 제주의 소리, 2023, “법환해녀학교졸업생 어촌계 가입
‘30.1%’불과, 명맥 끊어질라,” 2023년 10월 18일.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jeju/> (최
종열람일: 2024년 4월 13일).

법환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www.thehaenyeo-school.com/>
(최종열람일: 2024년 4월 15일).

한수풀해녀학교 <http://jejuhaenyoschool.com/> (최종열람
일: 2024년 4월 15일).

해녀박물관 <https://www.visitjeju.net/kr/> (최종열람일: 2024
년 4월 9일).

교신: 송원섭,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
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64-754-3233, 이메일: wssong@jejunu.ac.kr

Correspondence: Wonseob S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102, Jejudachak-ro,
Jeju city, Jeju Island, 63243, Republic of Korea, Tel:
+82-64-754-3233, E-mail: wssong@jejunu.ac.kr

최초투고일 2024년 07월 27일

수 정 일 2024년 08월 23일

최종접수일 2024년 09월 09일